

120킬로그램의 열혈여성

장편소설 《고래》낸 소설가 천명관

‘춘희’가 던지는 메가톤급 재미

그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표현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무의미한 수식에 불과할 듯하다. 혹자는 이런 것을 개성이라고 하는가. 작품이 작가를 닮는 것이라면 확실히 그는 자신과 닮은 소설을 내놓았다. 소설 《고래》가 그렇다.

지난 2003년, 단편소설 〈프랭크와 나〉로 문학동네 신인상을 받아 등단한 천명관(41) 씨는 이름 앞에 ‘소설가’를 붙이기가 애매하다. 굳이 표현하자면 ‘종합이야기예술인’ 정도가 낫겠다 싶다. 이미 두 편의 시나리오를 썼지만 현재도 시나리오와 영화연출을 준비 중인 ‘지방생’으로 앞으로 그가 어느 곳에서 어떤 이야기로 정착할지 단정하는 것은 이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두 번째 소설 《고래》로 제10회 문학동네소설상도 받았다. 소감을 물으니 “다행이었다” 하는 짧고 굵은 대답뿐이다.

“작품을 위해 6개월 정도 매달렸습니다. 교정작업도 좀 힘들었는데 그동안 제목도 바뀌었어요. 공모낼 당시엔 주인공 춘희를 생각하며 ‘붉은 벽돌의 여왕’으로 지었지만 단행본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출판사측은 소설의 전체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고래’를 제안해왔습니다. 처음 제 의도에서 너무 벗어나는 게 아닐까 했지만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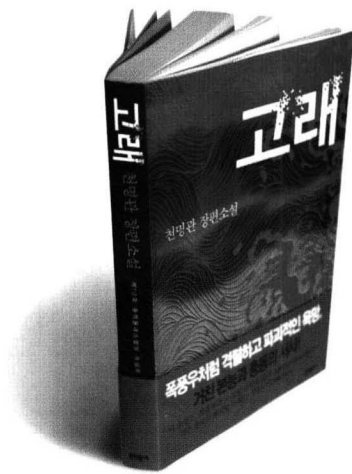
심사를 맡았던 소설가 임철우 씨는 《고래》를 두고 “인물의 내면 및 공간묘사를 거의 배제한 채 스토리의 골격만을 빠르게 따라가는 시나리오 기법에 의존하고 있다”며 다양한 장르의 흔적이 묻어나는 작품이라고 평했다. 줄거리를 선뜻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훗날, 대극장을 설계한 건축가에

의해 처음 그 존재가 알려져 세상에 흔히 ‘붉은 벽돌의 여왕’으로 소개된 그 여자 벽돌공의 이름은 춘희(春姬)다.” 소설은 이렇게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가지를 튼 이야기들은 책장을 덮을 수 없게 한다. 간단히 말해 ‘못생긴 국밥집 노파의 복수극’ 이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정해버리기에는 가지에 맺힌 얘기들이 너무 재미있다. 백 킬로그램이 넘는 춘희, 몸에서 특유의 향내를 풍기는 금복, 말하는 코끼리 점보, 딸을 애꾸눈으로 만든 지독히도 못생긴 국밥집 노파와 그의 딸 애꾸눈. 그 외 등장하는 각 인물들의 이야기가 흩어졌다가 다시 엮어진다. 어느 누구를 주인공이라고 지목하지 않는다.

“제 소설을 읽은 사람들은 도대체 소설에서 말하는 게 뭐냐고 묻습니다. 이야기 반, 해설 반인 소설에 길들여졌기 때문이에요. 작가들은 그것이 역량인 듯 해설하기에 바쁘고 독자들은 결국 ‘떠먹이는 밥’을 먹는 셈입니다. 그런 소설들에서 회의를 느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작품 속에 침전돼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은 독자들의 영역이지요.”

소설이 ‘주석달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뚜렷한 자신만의 작품관을 가지고 있는 그는 상상력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자유자재로 꾸며낸다. 괴담이나 전설처럼 터무니없는 글이 아니다. ‘꿈’을 포함한 환상적 세계를 그리면서도 완벽한 서사적 구성으로 이야기의 수위를 높이는 것, 《고래》는 이러한 이론을 전제로 두고 씌어졌다. 그도 그럴



《고래》 천명관 지음 | 문학동네 | 456쪽 | 값 9,800원

것이 4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지만 읽는 내내 지루함을 느낄 겨를이 없다. 애초 인물설정부부터도 그렇지만 곳곳에 심어둔 유머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해낸다. 특히, ‘그것은 사랑의 법칙이었다’ ‘그것은 거리의 법칙이었다’ ‘그것은 흥행업의 법칙이었다’ 등 각 정황 끝에 그것과 관련된 ‘법칙’을 정해둔 것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데 독자들은 작가가 이미 정해놓은 법칙에 여타 의견을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의 소설 속 문장을 인용하자면 ‘그것은 소설쓰기의 법칙’이었다.

충동적으로 소설을 썼다는 그는 영화연출지망생이었고 현재도 그렇게 자신을 소개한다. 1990년대 이후엔 줄곧 영화에 빠져 지내며 <총잡이>와 <북경만점>의 시나리오를 쓰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당시 소설에는 눈을 돌릴 수 없었다는 핑계 아닌 핑계도 생겼다. 사람들이 그를 평가할 때 ‘전통적 소설문법의 영향을 전혀 받았을 것 같지 않은 신진작가’라고 하지만 그는 기존문학에 분명히 빚진 게 있다고 고백한다.

“무의식중에 써내려간 글을 보며 놀랄 적이 많았어요. 기존문학을 통해 알게 모르게 축적된 지식들이 문장을 통해 드러날 때였지요. 제 자신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꼭 수준높은 이야기를 쓰는 것만이 소설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소설가는 지식인이어야 한다’는, 엄숙주의에 길들여진 생각 탓입니다. 소설 쓰기의 관건은 자기 시각으로 해석한 것을 소설적으로 어떻게 담아내느냐를 고민하는 것이예요.”

소설과 시나리오를 통해 그에게서 끊임없이 생산되는 이야기. 미사여구를 거의 쓰지 않으면서도 짐짓 화려하게 이야기를 가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시대가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고래》를 어떤 장르라고 정해두지 않았지만 근대를 겪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을 감안할 때 분명히 그는 시대와 문학의 많은 수혜를 누린 듯했다.

“《고래》를 영화로 만든다면 돈이 엄청 들겠죠. 소설과 시나리오는 이야기예술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제작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는 제약이 많습니다. 이번 작품도 소설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쓸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다양한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어떤 소설을 쓰겠다고 정해둔 건 없어요. 다만, 《고래》가 워낙 방대한 스케일로 썩어지다 보니 다음엔 소규모의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백’이라든지 ‘서정’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체질적으로 맞지 않아, 그런 소설은 제외해야 할 것 같고요.”

털모자와 그 아래로 가볍게 빠져나온 앞머리, 진한 테의 안경, 스포티한 복장이 그만의 스타일, 주로 글을 낮에 쓰는 것도 그만의 스타일이다. 그 이유에 대해 “밤에 쓰면 시가 될 것 같아서”란다. 현재 그는 장편소설과 ‘차객열전’이라는 제목으로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소설 속 배경과 인물의 이름 모두 해외가 무대인 단편소설도 곧 내용을 예정이다. 한국작가가 철저하게 외국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는 것은 드문 일. 그는 과연 소설이 닿을 수 있는 그 ‘끝’을 향해 견고 있었다. **주필**

취재 | 홍이현 기자 · 사진 | 박신우 기자